

『千金要方』에 기재된 傷寒學說에 관한 연구

이병욱 · 김은하* · 박현국 · 김기욱**

Abstract

A Study of Shang-Han Theory in Qian-Jin-Yao-Fang

Sun-Si-Miao(孫思邈) is known to everybody as a great medical doctor. But fewer people studied on his researches in Korea. On contribution to the field of Shang-Han(傷寒) theory, most oriental medical doctors only value that 'He contributed a theorem and diffusion of Shang-Han-Lun's(『傷寒論』) And this study aims to make out the influence of his various clinical-experiences upon the Shang-Han theory on the basis of Qian-Jin-Yao-Fang.(『千金要方』)

This study has two fields, a narrow and wide senses of the Shang-Han. Firstly, quotations from the Shang-Han-Lun were found from existing researches as a references in order to make out contents of a narrow sense of Shang-Han. And making a comparison between Shang-Han-Lun's prescription and Qian-Jin-Yao-Fang's, found sentences having similar names of prescription, compositional contents, and symptoms. Secondly, on contents of a wide sense of Shang-Han, it was analyzed the configurations and applied methods of prescription centering on the Shang-Han(傷寒), Zhu-Feng(諸風), Wen-bing(溫病), Ke-Sou(咳嗽), Bi-Se(秘澁), etc..

As a result, Sun-Si-Miao cited 65 sentences and also to the internal-medicine disease from the Shang-Han-Lun. In a part of a wide sense of Shang-Han, the introduction of various medicine for internal and external application helped to conquer limits of the internal medicine. In conclusion, Sun-Si-Miao is a great medical doctor who presented the Shang-Han theory as a clinical guide book.

Keyword: Qian-Jin-Yao-Fang(천금요방), Shang-Han(상한), Sun-Si-Miao(손사막), External Treatment(외치요법)

1. 序 論¹⁾

孫思邈은 唐初의 著名한 醫師로 京兆府 華原(지금의 陝西耀縣)의 사람이며 매우 長壽한 醫家중의 한사람이다. 南北朝 시기의 陳나라 宣帝 太建 13년(581년)에 태어나 당나라 高宗 永淳 元年(682년)에卒하였으니 102세를 살았다. 그는 성품이 고매하고 박학다식하며 經史와 佛老의 學問에 精通하였기에 『舊唐書』에는 그를 '善談老莊及百家之說하며 兼好釋典했다'라고 일컬었다. 30세를 전후하여 太白山에 은거하여 高僧들과 교분을 두텁게 하였고 煉丹術을 연구하기 시작하여 太乙神精丹을 성공적으로 제련하였다. 이 때에 그는 일련의 도가저작인 『攝生眞錄』, 『枕中素書』 등을 완성하였다.

* 경산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그는 當時에 名聲을 날렸지만 性格이 淡泊하여 隋唐兩代의 왕들의 청을 거절하여 벼슬을 하지 않고 종신토록 은거생활을 하였으며, 고상한 醫德의 소유자로서 민간에 거주하면서 소박한 생활을 하였고 약물을 채집하고 의학을 연구하여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저술 활동을 하다가 임종에 이르러 '시신을 간단하게 장사지낼 것과 부장품을 함께 묻지 말고 제사 때에는 고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유언하였다'고 한다. 또 그는 의학에 대하여 '至精至微之事이니 至粗至淺之思로써 경솔하게 종사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精勤不倦해야만 비로써 完成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醫學의 優秀한 傳統이 된 '醫德'을 무엇보다도 중시하였으므로 孫氏는 『千金要方』의 書頭에 「大醫精誠」을 두어 醫師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道德的인 準則을 全體적으로 論述하였다. 그는 唐以前의 中國의 약발전의 풍부한 경험을 계통화하고 자신의 80여년의 임상경험을 결합하여 두가지의 의학저작 『千金要方』 30권과 『千金翼方』 30권을 저술하였다²⁾. 그리고 序에서 "人命至重 有貴千金. 一方濟之 德踰于此 故以爲名也"³⁾라고하여 孫씨가 인명을 매우 소중히 했던 점과 서명을 『千金』이라한 까닭을 밝혔다. 이러한 孫씨에 대하여 張世英은 孫씨가 '醫德'강조, 張仲景의 傷寒學說을 발전, 醫藥 백과전서형식의 『천금요방』과 『천금익방』 저술, 부인과와 소아과에 대한 分科 기초 마련, 위생과 治未病之病 중심의 예방의학 강조, 사용약물의 범위 확대, 의료기술상의 새로운 방법창안, 화약 발명에 공헌, '養生長壽'學說을 발전, 질병인식방법에 대한 발전이라는 업적을 쌓았다⁴⁾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孫씨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았고, 孫씨의 상한학 方面의 공헌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仲景書의 정리와 전파에 대하여 공헌을 하였다"⁵⁾ 정도의 평가만 이루어져 있었다. 게다가 기존의 『상한론』의 정리와 전파의 업적에 관한 연구내용도 그가 『천금요방』을 저술할 당시 장중경의 『상한론』 전본을 얻지 못해서 그 책에 실지 못한 정황과 그것을 안타까와하던 그가 다시 『상한론』 전본을 얻어 『천금익방』중에 실게 된다는 내용이 중심이 되었다. 물론 孫씨가 만년에 『상한론』傳本을 얻어 『천금익방』 속에 넣음으로써, 후세에 『唐本傷寒』이라 불리게 되어 『상한론』의 원문보존에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孫씨의 상한에 관한 연구는 이것이 전부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논자는 『천금요방』의 상한학설 관련 내용을 협의의 상한⁶⁾과 광의의 상한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상한론』 全書의 내용으로 볼 때 인체가 風寒의 邪氣에 感觸되었을때 發生하는 疾病의 辨證論治의 규율이 중점적으로 논술되었으므로 그것은 협의의 傷寒이 위주가 된다고 볼 수 있다⁷⁾. 그러므로 협의의 상한에 관한 내용은 기존의 연구자료를 참고해서 『상한론』에서 인용한 문장을 찾았고, 아울러 『상한론』의 처방과 『천금요방』의 처방을 비교하여 처방명과 구성내용 그리고 적응증이 유사한 문장을 찾는 방식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빠졌던 내용들을 연구하였으며, 광의의 상한에 관한 내용들은 「傷寒」、「諸風」、「溫病」 및 「咳嗽」、「秘澀」등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거기에 사용된 처방을 찾아서 그 형태와 응용방법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孫씨의 학술사상 가운데 『천금요방』에 기재된 상

2) 趙法新의 3인: 『中醫文獻學辭典』, 中醫古籍出版社, 2000, p.173

3) 孫思邈 著, 劉更生·張瑞賢 點校: 『千金方』, 華夏出版社, 北京, 1994, p.6.

4) 張世英: 『藥王孫思邈醫藥方集』, 世界圖書出版公司, 西安, 1999. pp.418-422.

5) 王琦 主編: 『傷寒論研究』, 廣東高等教育出版社, 廣州, 1988, p.70.

6) 광의의 傷寒은 모든 外感열병을 총칭하는 것으로써, 예를 들면 『素問·熱論』에서 말한 "今夫熱病者, 皆傷寒之類也"라고 한 것이다. 협의의 傷寒은 外感風寒邪에 依하여 發生한 外感病을 말한다. 예를 들면 『難經·五十八難』에서 말한 "傷寒有五, 有中風, 有傷寒, 有濕溫, 有熱病, 有濕病"에서 "傷寒有五"의 傷寒은 광의의 傷寒이고 五種중의 傷寒은 협의의 傷寒이다.

7) 聶惠民主編: 『傷寒論講義』, 學苑出版社, 北京, 1996, p.3.

한학설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2. 本 論

孫씨의 상한학설에 관한 내용은 『천금요방』과 『천금익방』에 모두 기재되어있다. 물론 唐初에 그가 『천금요방』을 저술할 때에는 仲景의 『상한잡병론』이 아직 광범위하게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금요방』에 신지 못했고 또 그에 대하여 “江南諸師秘仲景要方不傳”⁸⁾이라고 한탄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孫씨는 『상한론』의 鈔本을 얻어 『천금익방』의 九卷과 十卷에 집어 넣으면서 九卷 「傷寒上」에서 “傷寒熱病，自古有之，名賢濬哲，多所防禦，至于仲景，特有神功，尋思旨趣，莫測其致，所以醫人未能鑽仰。嘗見太醫療傷寒，惟大青，知母等諸冷物投之，極與仲景本意相反，湯藥雖行，百無一效。傷其如此，遂披傷寒大論，鳩集要妙，以爲其方，行之以來，未有不驗。”⁹⁾이라고 해서 자신이 仲景의 이론을 임상실천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것들을 『상한론』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기존의 『상한론』 위주의 연구결과로 평가된 『상한론』 원문을 보존하여 후세에 전했다'라는 내용으로 결론짓기 보다는 차라리 『상한론』의 정리편차와 『천금요방』과 『천금익방』속의 상한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의 의학사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천금요방』과 『천금익방』의 전체적인 구조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2.1. 孫思邈의 『傷寒論』 연구

『傷寒雜病論』의 원시적인 판본은佚失되었지만, 그것이 쓰여진 방식은 '論'과 '方' 두 가지 종류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論'은 疾病에 관한 辨證이며 '方'은 구체적인 處方을 의미한다. 각각의 조문에 나타난 글자의 수는 약 100여 글자 이내 이며, 각각의 조문은 독립적으로 하나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하고 있다. 또한 각 조문간의 배열은 절대적인 순서의 관계가 없으므로 후대 傳本에 따라 조문 배열의 순서가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¹⁰⁾ 그리고 또한 시대에 따라 『傷寒論』에 대한 연구의 方法이 달랐는데, 역사적 흐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면, 晉唐時期까지는 『傷寒論』의 내용을 주로 收集·整理하는 단계이고, 宋金時期는 『傷寒論』에 대하여 심입하여 연구하고 학파를 형성하는 단계이며, 明清時期는 『傷寒論』에 대한 연구가 發展興盛하는 단계에 해당된다¹¹⁾. 이 중 孫氏는 王叔和와 함께 『傷寒論』 연구에 있어서 초기단계인 收集整理의 단계에 속한 사람이다.

王氏는 그의 저작 『脈經』에 『傷寒雜病論』의 내용을 「辨脈法」、「平脈法」、「傷寒例」、「辨瘧濕喝」、「霍亂」、「陰陽易差後勞復」 및 三陰三陽六病脈證并治의 내용으로 나누어 신고 있으며, 仲景의 조문에 대하여 汗、吐、下、溫、灸、刺、水、火 등을 可與不可로 나누고 또 汗吐下 후의 諸證으로 조문을 分類하여 『傷寒論』을 연구하였다.

이에 반해서 孫氏는 『천금요방』의 상한에서는 仲景、華佗、王叔和、陳延之、姚法衛、陳廩秋 등 제자들의 학설을 수집하여 “博采群經，以爲上下卷”¹²⁾ 하였다. 따라서 仲景 『상한론』에 언급되지 않

8) 孫思邈 著 李景榮의 6인 校釋: 『備急千金要方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8, p.225.

9) 孫思邈 著 李景榮의 5인 校釋: 『千金翼方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8, p.127.

10) 鄭城采: 『傷寒理論의 發展史에 關한 研究』, 東國대학교 대학원, 1999, p.32.

11) 『傷寒論研究』: 前掲書, p.68.

은 다양한 내용들이 『천금요방』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광의의 상한범주에 속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천금요방』의 체제는 「溫病」、「百合」、「孤惑」、「發黃」、「溫瘧」、「診溪毒證」 등의 병증을 傷寒篇에 통괄하였으며, 「驚癇」、「傷寒(小兒)」、「秘澁」、「咳嗽」、「肺痿」、「肺癰」、「霍亂」、「補腎」、「虛損」、「中風」등의 篇에서도 상한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孫씨는 상한이론의 적절한 응용을 위하여 처방을 汗、吐、下 및 發汗吐下後 4종 중심으로 나누고, 제가들의 방을 그 속에 배치하였으며, 소아의 특성을 헤아려 소아상한을 따로 배치하였다. 이외에도 상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별적인 증상에 대해서도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고 다양한 치료기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리방법은 이론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급한 상황을 구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의 도는 “夫尋方之要，以救俗爲貴，是以養生之家，常須合成熟藥，而備倉卒之急”¹²⁾에 잘 나타나있다. 따라서 그는 발한법에서 膏、散、丸、酒 등과 같은 응급에 필요한 製劑를 두었다. 또한 『傷寒論』이 “方論”爲主의 책인점과 『千金要方』과 『千金翼方』이 실제 臨床適用을 위한 方書인 점을 감안하여 “方證同條，比類相附”¹⁴⁾하는 처방중심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傷寒論』을 정리하여 임상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며, 특히 자신의 임상경험에 의하여 “夫尋方大義，不過三種，一則桂枝，二則麻黃，三則青龍，此之三方，凡療傷寒，不出之也。其柴胡等諸方，皆是吐下發汗後不解之事，非是正對之法。”¹⁵⁾이라는 강령까지 제공함으로써 臨床家들에게 손쉽게 傷寒을 治療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傷寒論』 조문의 分類방식은 후세의 注家인 柯韻伯와 尤怡 등이 『傷寒論』의 體例에 대하여 주해할 때 이것을 많이 모방했다. 孫씨가 桂枝湯、麻黃湯、青龍湯을 중시한 것은 「辨脈法」의 “風則傷衛，寒則傷營，營衛俱病，骨節煩疼”¹⁶⁾등과 關聯지을 수 있기 때문에 孫氏가 太陽病諸方의 大義를 만들어 후세의 ‘三綱鼎立說’에 큰 영향을 주었다¹⁷⁾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는 일이다. 또 孫氏는 『小品方』의 萎蕤湯을 인용하여 溫風條 아래에 놓아 “治冬溫及春月中風傷寒”¹⁸⁾에 使用하였는데, 仲景의 『傷寒論』 太陰病上篇 第6條에는 溫病、風溫의 論은 있지만 處方은 볼 수 없다. 孫氏는 萎蕤湯을 보충하여 滋陰、消熱、解表함으로써 仲景의 빠진 부분을 보충할 수 있었다. 후세의 溫病學家들은 이방법을 많이 採用하여 風溫을 치료했다. 더욱이 처음에는 加減葳蕤湯은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이외에도 孫氏는 清熱解毒、涼血、開竅、攻下、養陰등 方法의 運用에서 그것들을 실행하여 유효한 방제들을 제시함으로써 熱病 治療방면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¹⁹⁾ 이와같은 孫氏의 傷寒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2) 『備急千金要方校釋』: 前掲書, p.207.

13) 上掲書, pp.209-210.

14) 『千金翼方校注』: 前掲書, p.127.

15) 上掲書, p.127.

16) 郭靄春 張海玲 편저: 『傷寒論校注語譯』, 天津科學技術出版社, 河北省唐山市, 1996, p.253.

17) 『傷寒論研究』: 前掲書, p.70.

18) 『備急千金要方校釋』: 前掲書, p.213.

19) 『傷寒論研究』: 前掲書, p.70.

2.1.1. 『千金要方』의 傷寒範疇

孫思邈의 傷寒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千金要方』의 卷三의 虛損과 中風、 卷五의 驚癇과 傷寒、 卷八의 諸風、 卷九、 卷十、 卷十五의 秘泄、 卷十七의 肺痿와 肺癰、 卷十八의 咳嗽、 卷十九의 補腎、 卷二十의 霍亂에서 관련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광의의 傷寒에 屬하는 내용들이다. 『千金要方』 「傷寒上」의 내용을 보면 ‘避溫’에 關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熱性傳染病을 뜻하는 내용으로써 疫氣、 溫病、 傷寒、 溫氣、 溫疫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治方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가 使用한 處方과 治法중에는 仲景의 『傷寒論』에 없는 부분도 있다. 그러므로 仲景의 부족을 보충했다고 볼 수 있으며, 뿐만아니라 溫病學派에 대해서도 또한 比較的 많은 영향을 주었다. 또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병들이 협의의 傷寒에서는 언급이 없는 “斷溫疫轉相染著，乃至滅門，延及外人，無收視者方”²⁰⁾라는 전염성을 가진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避疫氣，令人不染溫病及傷寒，歲旦屠蘇酒方。大黃十五銖，白朮十八銖，桔梗，蜀椒 各十五銖，桂心十八銖，烏頭六銖，菝葜十二銖，一方有防風一兩。上七味咬咀，絳袋盛，以十二月晦日月中懸沈井中，令至泥，正月朔日平曉出藥，置酒中煎數沸，……一人飲，一家無疫，一家飲，一里無疫。飲藥酒得三朝，還滓置井中，能仍歲飲，家世無病，當家內外有井，皆悉著藥，避溫氣也”²¹⁾라고 하여 수인성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우물에 약재를 넣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小兒傷寒에 관한 부분에도 광의의 傷寒에 屬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또한 “五苓散，主時行熱病，但在言煩躁不安，精彩言語不如人相主當者方”²²⁾，“烏頭赤散，治天行疫氣病方”²³⁾，“解肌湯，治傷寒溫病方 …… 治傷寒時氣溫疫，頭痛壯熱 …… 治疫氣傷寒，三日以前不解者方”²⁴⁾，“漏蘆連翹湯，治時行熱毒，變作赤色癰疽丹疹毒腫，及眼赤通生障翳方”²⁵⁾，“治時行病發瘡方，取好蜜遍身摩瘡上，亦可以蜜煎升麻摩之，并數數食之”²⁶⁾，“治時行病急黃，并瘰癧疫氣及瘡瘡，茵陳丸方”²⁷⁾도 광의의 傷寒에 속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千金要方』은 광의의 傷寒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2. 小兒傷寒에 대한 논술

小兒傷寒에 關한 내용은 『千金要方』卷五 「驚癇」과 「傷寒」에 기술되어 있다. 小兒의 驚癇에 대하여 “少小所以有癇病及瘖病者，皆由臟氣不平故也。新生即癇者，是其五臟不收斂，血氣不聚，五脈不流，骨怯不成也，多不全育。其一月四十日以上至期歲而癇者，亦由乳養失理，血氣不和，風邪所中也。”²⁸⁾라고 하여 驚癇의 發生에 風邪가 關여한다고 여겼으며, “『神農本草經』說 小兒驚癇有一百二十種，其證候微異于常，便是癇候也……其經變蒸之後有病，余證并寬，惟中風最暴卒也。”²⁹⁾라고 하여 中風이 驚癇의 주요 원인임을 밝혔다. 그리고 그 治方으로 “增損續命湯(麻黃、甘草、桂心、芎藭、葛根、升

20) 『備急千金要方校釋』: 前掲書, p.212.

21) 上掲書, p.210.

22) 上掲書, p.214.

23) 上掲書, p.215.

24) 上掲書, p.218.

25) 上掲書, p.228.

26) 上掲書, p.229.

27) 上掲書, p.237.

28) 『千金方』: 前掲書, p.63.

29) 上掲書, p.63.

麻、當歸、獨活、人參、黃芩、石膏、杏仁), 治小兒卒中風惡毒及久風, 四肢角弓反張不隨, 并痺曳僻, 不能行步方³⁰⁾, “石膏湯(石膏、麻黃、甘草、射干、桂心、芍藥、當歸、細辛), 治小兒中風惡癖, 不能語, 口眼了戾, 四肢不隨方³¹⁾, “治少小中風, 狀如欲絕湯方(大黃、牡蠣、龍骨、栝樓根、甘草、桂心、赤石脂、寒水石³²⁾, “治少小中風, 脈浮發熱, 自汗出, 項強, 鼻鳴乾嘔, 桂枝湯方(桂心、甘草、芍藥、大棗、生薑³³⁾, “治少小新生, 肌膚幼弱, 喜爲風邪所中, 身體壯熱, 或中大風, 手足驚掣, 五物甘草生摩膏方(甘草、防風、白朮、雷丸、桔梗³⁴⁾”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傷寒論』의 “太陽病, 發熱而渴, 不惡寒者, 爲溫病. 若發汗已, 身灼熱者, 名風溫. 風溫爲病, 脈陰陽俱浮, 自汗出, 身重, 多眠睡, 鼻息必鼾, 語言難出. 若被下者, 小便不利, 直視失溲. 若被火者, 微發黃色, 劇則如驚癇, 時瘧癘, 若火薰之. 一逆尙引日, 再逆促命期.”³⁵⁾와 비교하면驚癇과 관련된 증상들이나 “『神農本草經』說 小兒驚癇有一百二十種, 其證候微異于常, 便是癇候也……其經變蒸之後有病, 余證并寬, 惟中風最暴卒也.”³⁶⁾라고 한 내용들이 상당히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治少小中風, 脈浮發熱, 自汗出, 項強, 鼻鳴乾嘔, 桂枝湯方(桂心、甘草、芍藥、大棗、生薑)”³⁷⁾은 『傷寒論』의 “太陽中風, 陽浮而陰弱, 陽浮者, 熱自發, 陰弱者, 汗自出, 翕翕惡寒, 淅淅惡風, 翁翁發熱, 鼻鳴乾嘔者, 桂枝湯主之”³⁸⁾ 및 『千金要方』 「發汗湯」의 “桂枝湯 治中風, 其脈陽浮而陰弱, 陽浮者, 熱自發, 陰弱者, 汗自出, 翕翕惡風, 淅淅惡寒, 翁翁發熱, 鼻鳴乾嘔方”³⁹⁾과 그 내용이 매우 비슷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小兒驚癇에 나타난 傷寒에 관한 내용들은 『傷寒論』에서 주로 언급한 疒의 傷寒에 屬하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다.

『千金要方』卷五 「傷寒」에서는 “夫小兒未能冒涉霜雪, 乃不能傷寒也. 大人解脫之久, 傷于寒冷, 則不論耳. 然天行非節之氣, 其亦得之. 有時行疾疫之年, 小兒出腹便患斑者也, 治其時行節度, 故如大人法, 但用藥, 分劑少異, 藥小冷耳.”⁴⁰⁾라고 했는데, 이것은 唐初期의 소아상한에 대한 인식을 설명한 것으로서 먼저 소아는 서리와 눈을 맞지 않으므로 傷寒에 걸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으며, 다만 어른이 옷을 갈아입힐 때 오래도록 방치하여 寒冷에 損傷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며, 또한 전염병이 유행할 때 소아의 배를 내놓으면 發斑할 수 있는데, 治療時에는 절도있게 행해야 하는데, 성인의 方法과 같으나 다만 소량을 使用하고 조금 차게 한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孫氏는 소아의 傷寒이 성인과 비슷하지만 治療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음을 감안하여 따로 분리하여 기록하였다. 『千金要方』중에 기재된 小兒傷寒과 관련된 문장과 처방구성은 다음과 같다.

治小兒未滿百日傷寒, 鼻衄身熱嘔逆, 麥門冬湯方(麥門冬, 石膏, 寒水石, 甘草, 桂心)
治少小傷寒, 芍藥四物解肌湯方(芍藥, 黃芩, 升麻, 葛根)

30) 上揭書, p.65.

31) 上揭書, p.65.

32) 上揭書, p.65.

33) 上揭書, p.65.

34) 上揭書, p.65.

35) 劉建平의 3인: 『中醫經典通釋傷寒雜病論』, 河北科學技術出版社, 石家莊市, 1996, pp.5-6.

36) 『備急千金要方校注』: 前揭書, p.92.

37) 『千金方』: 前揭書, p.65.

38) 『中醫經典通釋傷寒雜病論』: 前揭書, p.8.

39) 『備急千金要方校釋』: 前揭書, pp.216-217.

40) 上揭書, p.101.

治少小傷寒，發熱咳嗽，頭面熱者，麻黃湯方(麻黃，生薑，黃芩，甘草，石膏，芍藥，杏仁，桂心)
 治小兒傷寒方(葛根汁，淡竹瀝)
 治小兒時氣方(桃葉)
 治小兒傷寒病久不除，瘥後復劇，瘦瘠骨立，五味子湯(五味子，甘草，當歸，大黃，芒硝，麥門冬，黃芩，前
 胡，石膏，黃連)
 治少小傷寒，莽草湯浴方(莽草，牡蠣，雷丸，蛇床子，大黃)
 治小兒卒寒熱不佳，不能服藥，莽草湯浴方(莽草，丹參，桂心，菖蒲，蛇床子，雷丸)
 治小兒忽寒熱，雷丸湯浴方(雷丸，大黃，苦參，黃芩，丹參，石膏)
 治少小身熱，李葉湯浴方(李葉)
 治小兒生一月至五月，乍寒乍熱方(細絕柳枝，煮取汁洗兒，若渴，絞冬瓜汁服之)
 青木香湯 浴小兒壯熱羸瘠方(青木香，麻子仁，虎骨，白芷，竹葉)
 治小兒暴有熱，得之二三日，李根湯方(李根，桂心，芒硝，甘草，麥門冬)
 治少小身體壯熱，不能服藥，十二物寒水石散紛方(寒水石，芒硝，滑石，石膏，赤石脂，青木香，大黃，甘
 草，黃芩，防風，芍藥，麻黃根)
 升麻湯 治小兒傷寒，變熱毒病，身熱面赤，口燥，心腹緊急，大小便不利，或口瘡者，或因壯熱，便四
 肢攣掣驚，仍成痼疾，時發時醒，醒後身熱如火者，悉主之方(升麻，白薇，麻黃，萎，柴胡，甘草，黃芩，
 朴消，大黃，鉤藤)
 治小兒肉中九挾宿熱，瘦瘠，熱進退休作無時，大黃湯方(大黃，甘草，芒消，桂心，石膏，大棗)
 治小兒潮熱，蜀漆湯方
 (蜀漆，甘草，知母，龍骨，牡蠣)
 治小兒腹大短氣，熱有進退，食不安，谷爲不化方(大黃，黃芩，甘草，芒消，麥門冬，石膏，桂心)
 治小兒夏月患腹中伏熱，濇壯來往，或患下利，色或白或黃，三焦不利，竹葉湯方
 (竹葉，小麥，柴胡，黃芩，茯苓，人參，麥門冬，甘草)
 竹葉湯 主五六歲兒溫壯，腹中急滿，食不利，或有微腫，亦主極羸，不下飲食，堅痞，手足逆冷方(竹
 葉，小麥，甘草，黃芩，栝樓根，澤瀉，茯苓，知母，白朮，大黃，桂心，生薑，人參，麥門冬，半夏，當歸)
 小兒連壯熱，實滯不去，寒熱往來，微驚悸方(大黃，黃芩，栝樓根，甘草，桂心，滑石，牡蠣，人參，龍骨，
 凝水石，白石脂，消石)
 調中湯 治小兒春秋月晨夕中暴冷，冷氣折其四肢，熱不得泄則壯熱，冷氣入胃變下痢，或欲赤白滯起
 數去，小腹痛，極壯熱氣，脈洪大，或急數者，服之熱便歇，下亦瘥也。但壯熱不吐下者，亦主之方
 (葛根，黃芩，茯苓，桔梗，芍藥，白朮，藁本，大黃，甘草)
 治小兒寒熱進退，啼呼腹痛，生地黃湯方(生地黃，桂心一方七味 有芍藥，寒水石，黃芩，當歸，甘草)
 治小兒傷寒發黃方(土瓜根汁又方 青脈汁，又方 韭根汁，又方 小豆，瓜蒂，糯米)
 治少小有熱不汗，二物通汗散方(雷丸，粉)
 治少小頭汗，二物茯苓粉散方(茯苓，牡蠣)
 治少小盜汗，三物黃連粉方(黃連，牡蠣，貝母)
 此由心臟熱之所感，宜服犀角飲子方(犀角，茯苓，麥門冬，甘草，白朮)
 恒山方 治小兒溫瘧方(恒山，小麥，淡竹葉，又方 鹿角末，又方 燒鱉甲灰，燒鷄此腔中黃皮末，乳)

이상을 요약면 『千金要方』은 소아의 傷寒病의 범주를 매우 넓게 보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소아의 모든 發熱性 疾患과 전염성 疾患部分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3. 『千金要方』 中에 인용된 『傷寒論』 條文

錢41)은 『千金要方』 권9 제2절은 「避溫」으로 『상한론』 내용과는 상관이 없다. 제3절은 「傷寒膏」이고, 제4절은 「發汗散」으로 이 두 절의 내용도 『상한론』과 전혀 상관이 없다. 『상한론』의 내용과 유관한 것은 제5, 제6, 제7, 제8, 제9절이다.⁴²⁾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千金要方』의 論中 『傷寒論』의 조문을 인용한 것은 卷九에서 三陰三陽의 條文을 수록한 총 47(원문에는 49개이며, 320은

41) 錢超塵: 『傷寒論文獻通考』의 저자

42) 錢超塵: 『傷寒論文獻通考』, 學苑出版社, 北京, 2000, p.125.

321로 되어있고 324, 355가 더 있다)개의 조문이며, 조문을 순서에 따라서 나열하면, 12, 13, 15, 16, 17, 19, 25, 34, 35, 38, 40, 43, 44, 45, 52, 53, 54, 57, 63, 66, 67, 77, 82, 95, 106, 125, 126, 128, 131, 135, 137, 157, 158, 166, 168, 169, 170, 208, 209, 210, 218, 222, 236, 237, 320, 322, 397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傷寒論』에서 사용된 處方名과 『千金要方』중에서 사용된 處方名을 비교하고 그 구성과 主治증을 분석해보면, 총 32가지 處方에 33개의 『傷寒論』 條文이 인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분석내용은 [표1]과 같다)

[표 1] 『千金要方』의 處方名을 이용한 『傷寒論』 條文引用 對照表

처방명	千金要方	傷寒論 條文
桂枝加附子湯	3-1	20
小柴胡湯	3-3	96
桂枝湯	5-3	12
桂枝湯	9-5	12
大靑龍湯	9-5	38
麻黃湯	9-5	35
瓜蒂散	9-7	166
大承氣湯	9-8	238
抵當湯	9-8	124
抵當丸	9-8	126
甘草瀉心湯	9-9	158
生薑瀉心湯	9-9	157
麻黃杏仁石膏甘草湯	9-9	63
小靑龍湯	9-9	40
大陷胸丸	9-9	131
大陷胸湯	9-9	134
桂枝二麻黃一湯	9-9	25
玄武湯	9-9	82
白虎湯	9-9	168
麻黃升麻湯	10-1	357
赤石脂禹餘糧湯	10-1	159
枳實梔子湯	10-2	393
茵陳湯	10-5	236
		260
五苓散	10-5	71
麻子仁丸	15-6	247
甘草湯	17-6	311
甘草乾薑湯	17-6	29
桔梗湯	17-7	311
十棗湯	18-5	152
小建中湯	19-8	102
通脈四逆加猪膽汁湯	20-6	390
四逆湯	20-6	323
通脈四逆湯	20-6	317

그리고 對照表와 錢⁴³⁾이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千金要方』에서 인용한 『傷寒論』 조문을 살펴

보면, 3권의 「虛損」, 「中風」, 5권의 「驚癇」, 9권의 「發汗湯」, 「宜吐」, 「宜下」, 「發汗吐下後」, 10권의 「傷寒雜治」, 「勞復」, 「傷寒發黃」, 15권의 「秘澁」, 17권의 「肺痿」, 「肺癰」, 18권의 「咳嗽」, 19권의 「補腎」, 20권의 「霍亂」에 걸쳐서 총 65개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다. 이는 『傷寒論』 조문 398개의 1/6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이중 9권과 10권을 제외한 부분의 12개의 處方은 내과증상에 포함되어 언급되고 있던 부분들이다. 그리고 인용된 『傷寒論』 조문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12, 13, 15, 16, 17, 19, 20, 25, 29, 34, 35, 38, 40, 43, 44, 45, 52, 53, 54, 57, 63, 66, 67, 71, 77, 82, 95, 96, 102, 106, 124, 125, 126, 128, 131, 134, 135, 137, 152, 157, 158, 159, 166, 168, 169, 170, 208, 209, 210, 218, 222, 236, 237, 238, 247, 260, 311, 317, 320, 322, 323, 357, 390, 393, 397순이다.

2.1.4. 『千金要方』 중의 傷寒의 治療方法 및 治方의 劑型

2.1.4.1. 傷寒의 治療方法

2.1.4.1.1. 針灸

『千金要方』중에 傷寒과 관련된 針灸處方은 「發汗吐下後」에 1首, 「傷寒發黃」와 「溫瘧」에 각각 3首와 19首가 기재되어 있으며, 『千金要方』 卷五의 「傷寒」에도 1首가 기재되어 있다.

2.1.4.1.2. 內服藥

藥物服用의 方法은 傷寒을 治療하는 方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千金要方』 中에는 湯、散、丸、膏、汁、酒、醋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處方과 劑型未詳의 處方들이 모두 258首가 기재되어 있으며, 때로는 한가지 處方을 두가지 형태로 應用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기에서 湯으로 分類한 것은 약을 만들때 水煎와 煮法이 使用된 것을 뜻하고, 散은 末과 粉의 方法을 使用하거나 燒한 뒤 재를 服用하는 경우를 포함시켰다. 『千金要方』중에 傷寒 治療에 使用된 內服藥을 劑型별로 분석하면, 湯(142)、散(47)、丸(31)、汁(18)、酒(14)、膏(6)、劑型未詳(7)、醋(1)의 순으로 나타났다. 『千金要方』에서 傷寒과 關聯된 부분을 篇名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2]와 같다.

43) 錢超塵: 『傷寒論文獻通考』의 저자

[표 2] 『千金要方』의 傷寒處方 劑型分析(內服藥)

篇名총계(중복)	劑型
卷三 虛損1	湯1
卷三 中風1	湯1
卷五 驚癇1	湯1
卷五 傷寒23(2)	散4, 汁4, 湯17
卷八 諸風1	湯1
卷九 避溫26	未詳5, 散3, 酒4, 汁1, 湯10, 丸3
卷九 傷寒膏3	膏3
卷九 發汗散11	散11
卷九 發汗湯19	湯19
卷九 發汗丸2	丸2
卷九 宜吐5	散2, 酒1, 湯1, 丸1
卷九 宜下8	湯6, 丸2
卷九 發汗吐下後17	湯15, 丸2
卷十 傷寒雜治36(3)	膏3, 散2, 劑型未詳1, 酒5, 汁5, 湯22, 丸1
卷十 勞復19(1)	散7, 汁2, 醋1, 湯8, 丸2
卷十 百合7	散2, 湯5
卷十 傷寒不發汗變成狐惑病3	散1, 湯2
卷十 傷寒發黃34(1)	散9, 酒1, 汁3, 湯12, 丸9
卷十 溫瘧33(1)	劑型未詳1, 散6, 酒3, 汁3, 湯13, 丸8
卷十五 秘澁1	丸1
卷十七 肺痿2	湯2
卷十七 肺癰1	湯1
卷十八 咳嗽1	湯1
卷十九 補腎1	湯1
卷二十 霍亂3	湯3

또한 藥物을 服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治勞復，起死人麥門冬湯，氣欲絕用有效方，麥門冬一兩，京棗二十枚，竹葉切一升，甘草二兩，上四味咬咀，以水七升煮粳米一升令熟，去米納諸藥，煎取三升，分三服，不能服者綿滴湯口中”⁴⁴⁾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治療방법을 찾았다. 그러나 그의 處方중에는 “治交接勞復，陰卵腫縮，腹中絞痛，便欲死方。取所交接婦人衣裳，而覆男子，立愈。令病人不復方 取女人手足爪二十枚，女人中衣帶一尺燒，以酒若米飲汁服.”과 같은 주술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2.1.4.1.3.外用藥 및 其他 治法

『千金要方』중에는 광의의 傷寒에 대하여 여러 가지 藥物치료를 했는데, 그중 외용약을 使用한 것

44) 『備急千金要方校釋』: 前掲書, p.232.

이 57수가 있으며, 記載頻度는 洗法(21)、塗布法(20)、薰法(6)、吸入法(5)、휴대법(4)、좌약법(1)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符籍法 2首, 祭祀法 1首와 같은 주술적인 方法도 소개하였다. 이것을 篇名과 用法에 따라 分類하면 [표3]과 같다.

[표 3] 『千金要方』의 傷寒處方 用法分類(外用藥)

篇名 총계(중복)	用法
卷五 驚癇1	塗布1
卷五 傷寒13	洗8, 塗布4, 吸入1
卷八 諸風1	洗1
卷九 避溫12(5)	洗1, 塗布4, 薰6, 携帶5, 吸入1
卷九 傷寒膏3	塗布3
卷九 發汗散3	洗1, 吸入2
卷九 發汗湯1	塗布1
卷十 傷寒雜治16	洗8, 塗布6, 薰1, 符籍1, 坐藥1
卷十 勞復2	洗1, 携帶1
卷十 百合1	洗1
卷十 傷寒發黃1	吸入1
卷十 溫瘧3	符籍1, 祭祀1, 塗布1

洗法은 藥物을 煎煮、粉末、取汁한 뒤 물에 타거나 혹은 그냥 환부 혹은 전신을 씻는 方法으로 써 『千金要方』에서 傷寒을 治療하는 外傷藥의 用法중 가장 많은 21首를 차지한다. 이중 “治中風發熱, 大戟洗湯方, 大戟, 苦蔘, 上二味等分末之, 以藥半升, 白醋漿一斗者醋三沸, 適寒溫, 洗之從上下, 寒乃止, 立瘥, 小兒三指撮, 漿水四升煮洗之.”⁴⁵⁾, “治小兒生一月至五月, 乍寒乍熱方, 細切柳枝, 煮取汁洗兒”⁴⁶⁾와 같은 것은 찬성질의 약물을 이용하여 전신을 씻음으로써 熱을 내리고자 하는 의도로 사용된 것이고, “治時行, 頭痛壯熱一二日, 水解散方, 桂心, 甘草, 大黃各二兩, 麻黃四兩, 上四味治下節, 患者以生熟湯浴訖, 以暖水服方寸匕, 日三”⁴⁷⁾는 내복과 외용을 동시에 應用한 처방이다.

塗布法은 膏、散、湯、丸의 형태를 가진 약물을 피부에 도포하여 약성을 체내에 침투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方法으로써 『千金要方』중에 傷寒과 관련된 것은 20首가 언급되었다. 특히 膏의 형태를 지닌 약제는 “治傷寒, 頭痛項強, 四肢煩疼, 青膏方, 當歸, 芎藭, 蜀椒, 白芷, 吳茱萸, 附子, 烏頭, 莽草各三兩, 上味麩咀, 以醇苦酒漬之再宿, 以豬脂四斤煎, 令藥色黃, 絞去滓, 以溫酒服棗核大三枚, 日三服, 取汗, 不知稍增, 可服可摩, 如初得傷寒一日, 苦頭痛背強, 宜摩之佳.”⁴⁸⁾처럼 內服의 效果를 상당부분 대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吸入法은 散의 형태를 지닌 약물을 코를 통하여 흡수시키는 方法으로 傷寒과 관련된 『千金要方』

45) 上揭書, p.189.

46) 上揭書, p.102.

47) 上揭書, p.215.

48) 上揭書, p.213.

중에는 5首가 언급되어 있다. 吸入法 또한 內服의 機能을 대신할 수 있는 方法으로 특히 “烏頭赤散, 治天行疫氣病方. 烏頭一兩半, 皂莢半兩, 雄黃, 細辛, 桔梗, 大黃各一兩. 上六味治下篩, 清酒若井華水服一刀圭, 日二, 不知稍增, 以知爲度. 除時氣疫病, 若牛馬六畜中水行疫, 亦可與方寸匕. 人始得病一日時, 服一刀圭, 取兩大豆許吹著兩鼻孔中.”⁴⁹⁾처럼 人事不省이거나 동물들에게 적용할 때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坐藥法은 약물을 천문혀서 항문에 넣었다가 바꾸는 방식으로 현대의 좌약처럼 사용했는데, “治赤白下膿, 小兒得之三日皆死, 此有蠹蟲在下部方. 麝香, 礬石, 巴豆, 附子, 珍珠, 雄黃. 上六味等分治合, 取桑條如箭箠長三寸, 以綿纏頭二寸, 唾濡綿展取藥著綿上, 納谷道中, 半日復易之, 日再, 神效.”⁵⁰⁾라고하여 熱性疾患에 대한 좌약요법을 소개하였다.

熏法은 散이나 丸의 형태로 만들어진 약재들을 태워서 燒薰하는 方法과 약재를 천에 싸서 우물물에 담그는 것을 지칭한 것이다. 그리고 熏法을 하는 약재들 가운데에는 동시에 휴대를 하는 경우나 혹은 집안에 걸어두게 하는 處方들이 있는데 이것은 溫病과 같은 疾患들이 귀신 때문에도 發生한다고 믿었던 당시의 風濕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약재들은 주로 붉은 색을 띠는 약재를 사용하거나 귀신을 쫓아낸다고 믿었던 호랑이의 뼈를 약재로 사용하였으며, 혹은 붉은색 주머니에 약재를 넣어 지니고 다니다가 燒薰하거나 복용하기도 하였다. “避溫氣, 太一流金散方. 雄黃二兩, 雌黃三兩, 礬石一兩半, 鬼箭羽一兩半, 殺羊角二兩, 燒, 上五味治下篩, 三角絳袋盛一兩, 帶心前, 并挂門戶上. 若逢大疫之年, 以月旦青布裏一刀圭, 中庭燒之, 溫病人亦燒薰之.”⁵¹⁾는 일반적으로 맹렬한 약성을 가진 약재를 태움으로써 溫病을 일으키는 疫氣를 물리친다는 의미에서 사용했던 처방이고, “避溫, 虎頭殺鬼丸方. 虎頭五兩, 朱砂, 雄黃, 雌黃角一兩半, 鬼臼, 皂莢, 蕪荑各一兩. 上七味末之, 以蜜蜡和爲丸, 如彈子大, 絳袋盛承臂, 男左女右, 及懸屋四角, 晦望夜半中庭燒一丸.”⁵²⁾는 약재의 效能 뿐만 아니라 주술적인 내용도 포함된 處方이다.

其他 휴대법, 부적법, 제사법 등은 주술적인 성격이 강한 처방들로써 당시까지 지속적으로 의학에 영향을 미쳤던 주술적인 내용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結論

著者は 本論의 研究를 통하여 나타난 『千金要方』에 기재된 傷寒學說에 관한 연구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1. 『千金要方』에서 언급한 傷寒學說의 내용은 廣義의 傷寒의 범주에 屬한다.
2. 『千金要方』중에 이미 小兒와 성인의 傷寒治療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따로 분리하여 논술하고 있다.
3. 『傷寒論』 全本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총 65개의 『傷寒論』 조문을 기록하고 있으며, 32가지 『傷寒論』 處方을 인용하고 있다.
4. 『千金要方』중에는 『傷寒論』에서 인용한 方論을 포함하여 총 308건 이상의 傷寒관련 治療方法을 기록하고 있다.

49) 上揭書, p.215.

50) 上揭書, p.230.

51) 上揭書, p.210.

52) 上揭書, pp.210-211.

5. 孫氏는 이론과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臨床實際에서 접하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湯、丸、散、膏、汁、酒、醋 형태의 내복약을 언급하였고, 외치법으로 洗法、塗布法、薰法、吸入法、후대법, 좌약법을 응용한 다양한 傷寒治療法을 활용하였다.

參考文獻

1. 郭靄春 張海玲 편저: 『傷寒論校注語譯』, 天津科學技術出版社, 河北省唐山市, 1996.
2. 聶惠民 主編: 『傷寒論講義』, 學苑出版社, 北京, 1996.
3. 孫思邈 著, 劉更生·張瑞賢 點校: 『千金方』, 華夏出版社, 北京, 1994.
4. 孫思邈 著 李景榮의 5인 校釋: 『千金翼方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8.
5. 孫思邈 著 李景榮의 6인 校釋: 『備急千金要方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8.
6. 王琦 主編: 『傷寒論研究』, 廣東高等教育出版社, 廣州, 1988.
7. 劉建平의 3인: 『中醫經典通釋傷寒雜病論』, 河北科學技術出版社, 石家庄市, 1996.
8. 張世英: 『藥王孫思邈醫藥方集』, 世界圖書出版公司, 西安, 1999.
9. 錢超塵: 『傷寒論文獻通考』, 學苑出版社, 北京, 2000.
10. 鄭城采: 傷寒理論의 發展史에 關한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9.
11. 趙法新의 3인: 『中醫文獻學辭典』, 中醫古籍出版社, 2000.